

전남

# 강진군 2014년 청자엑스포 포기

## 문광부·기재부 “효과 낮다” 난색에 국비 확보 못해

### 재정상황 큰 부담속 4년만에 백지화

강진군은 당초 2014년 7월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청자 엑스포’를 내부 논의 끝에 최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군은 100만명 관광객이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청자 축제’를 밑거름으로 대구면 청자 도요지 일원에서 엑스포를 열어 고려시대 최고의 첨단 산업이자 세계 최고의 예술품으로 평가받는 청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었다.

군은 국비 20억원·도비 20억원·군비 152억원 등 192억원을 투입해 엑스포를 치른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가 ‘경제적 효과가 낮다’며 난색을 표명하면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는 현재 폐막을 앞두고 있는 여수 세계박람회의 기대박 흥행실과가 부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F1과 여수 엑스포, 국제 농업

박람회, 순천 정원박람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로 전남도의 재정적 여력이 위축된 데다 재정자립도가 10%로 전남 22개 시·군 평균(14.6%)을 크게 밑돌며 군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큰 부담이 됐다.

청자엑스포는 한국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결과 생산 규모 2000억원, 부가가치 최고 1007억원, 고용유발효과 최대 4600명으로 예상됐지만 정부 내 부정적 기류와 정권말 신규사업 기피 현상, 지자체 재정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추진 4년 만에 백

지화됐다.

강진군 관계자는 “정부가 고성 공룡엑스포 이후 소규모 엑스포에 대해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2년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현안도 많은데 무리하게 엑스포를 추진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컸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함평군은 7월 9일 불투명한 예산확보를 이유로 내년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더위엔 물이 최고” 지난 31일 ‘제40회 강진 청자축제’가 열리고 있는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행사장에서 어린이들이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청자축제는 5일까지 열린다. <강진군 제공>

## 광양경제청, 日 철강·물류기업 유치 잔걸음

### 스카스틸과 200억·코에이와 80억 투자협약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은 최근 철강 연관산업 일본 기업과 잇따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광양경제청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철강·물류기업인 스카스틸(주)(대표 호시노 요이치)과 2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 한데 이어 후쿠오카에서 표면처리 및 자동차 열차 엔진 생산체인 코에이 테크노시스템(주)(대표 야스카게 료스케)과 8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광양경제청은 최근 일본 도쿄와 후쿠오카를 방문, 기업 맞춤형 투자 설명회와 경제인단체 초청 간담회, 타깃기업 면담을 진행하며, 광양만권의 투자매력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2차례의 투자 설명회에서는 일본내 철강과 물류관련 기업들이 다수 참여해 해외진출에 높아진 관심도

를 보였다.

이번 투자유치 활동은 대일본 지진 이후 일본내 제조업체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만권의 주력산업인 철강과 물류 관련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진행했다.

이희봉 광양경제청장은 “광양만권은 조강생산능력 세계 4위의 포스코와 국내 2위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광양항을 보유한 글로벌 경제특구”라면서 “관련 제조업체들의 해외 진출 시 철강과 물류 관련산업이 고도화된 광양만권에 우선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광양만권에 일본의 제조업체 투자유치가 잇따름에 따라 일본내 인지도 상승과 향후 첨단 제조업 유치는 물론 현재 개발중인 울촌 제2산단 등 6개 산단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yjy@

### 고흥군 우수기관

#### 전남도 민원행정 경진대회

고흥군이 최근 전남도 주관의 2012년도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에서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군은 지난 해부터 추진해온 민원인을 위한 다양한 친절시책을 ‘고객불만 제로, 해피민원실 운영’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평가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군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청렴교육 ▲민원담당 공무원의 실명제 명함비치 ▲고객불만 접수창구 운영 ▲고객상담 및 도우미 배치 ▲고객에게 물품료 사용 등 5대 친절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주길중기자 gju@

## “전남대, 여수캠퍼스 규모 줄었다”

### 여수캠퍼스 총동장회·총학생회 통합 이후 구성원 줄어 공동화

전남대가 7년전 여수대와 통합당시 약속과는 달리 여수캠퍼스 규모를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총동장회와 총학생회는 지난 31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이후 여수캠퍼스의 구성원이 크게 줄어드는 등 심각한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학 발전을 가로막는 여수캠퍼스에 대한 통합시도를 당장 멈추고 여수 캠퍼스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2005년 통합추진 당시 광주캠퍼스의 교수 수는 917명에서 지난해 972명으로 6년만에 55명이 늘어난 반면, 여수캠퍼스는 176명

서 177명으로 단 1명만 늘어났다. 같은 기간동안 학생 수는 광주 4255명, 여수 1219명이었으나 2011년 광주 3460명, 여수 890명으로 광주는 18% 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수는 26% 포인트가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직원 수는 광주캠퍼스는 396명에서 445명으로 49명이 늘어난 반면 여수캠퍼스는 180명에서 139명으로 41명이 줄어드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여수캠퍼스 총동장회와 총학생회는 “올해 여수캠퍼스 영양식품학과 학생 6명과 교수 5명을 광주캠퍼스 식품영양학과로 통합하려는 학사조직 개편계획은 통합당시 양 캠퍼스간 균형발전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통합당시 약속한 한의대와 국동캠퍼스에 부속병원을 설립한다는 약속 등을 지금까지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보성 QR코드도 지역 브랜드로!

### 군정 홍보 체계 구축 이달부터 본격 서비스

보성군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QR(Quick Response)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보성군은 “스마트폰 가입자 3000만명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군정홍보체계를 구축해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군은 군정 소식과 축제, 행사 등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군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책자·포스터·각종 인쇄물과 관광지·문화재·농·특산품 포장재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직원 누구나 QR코드를 편리하고 간단하게 제작·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실과소와 읍·면별로 QR코드를 활용한 군정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 사용 실적을 분석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6~27일 각 분야별 12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QR교육을 실시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QR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보성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정서비스 및 관광 홍보에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시간 생산한 군정홍보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윤복기자 kyb@

## 전북

## 국제 한식조리학교 9월 개교

### 한식문화재단, 120억 들여 전주대 본관 리모델링

한식 전문조리사 양성을 위한 국제 한식조리학교가 9월 문을 연다.

(재)국제 한식문화재단(이사장 고건 전주대총장) 산하 국제 한식조리학교는 총 120억원의 사업비로 전주대학교 본관 4~5층을 리모델링했다.

여기에는 한식 조리학교와 부설 한식당, 한식문화 교육관 등이 오는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들어선다. 한식 조리학교는 호텔, 외식업체 조리사, 지배인, 외국과전 전문 한식조리

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과정은 정규 1년, 정규 2년, 단기(1~3주), 체험(외국인 대상) 등 4개로 이뤄졌다.

정혜정 교장은 “국내외 특급호텔 조리사와 외식업체 대표 등으로 학교 강사진을 구성해 조리뿐 아니라 외국어 등 기본소양을 갖춘 한식 스타셰프를 양성, 외국에 제대로 된 한식을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한여름밤 작은음악회 순창 음악협회(대표 임형택)는 지난 30일 밤 순창군청 광장에서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순창 국악원팀의 어울미당 사물놀이팀이 시작으로 동계고 K-POP 공연, 다문화가정 공연 등이 선보였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 정읍시 건설공사·공유재산 특감

### 전북도 감사관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25~31일 5일 동안 정읍시 건설공사 및 공유재산에 대한 특감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기존의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 연찬을 통한 예방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건설사업 추진 및 보조금 등 각종 예산집행 관련 연찬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도 감사관실 박양래 기술감사 담당은 지난 31일 시 사업부서 전 직원과 예산 집행 관련 공무원 4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에서 사후관리 비용이나 적자 운영 등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 결과 일부 시설물의 활용도가 극히 저조해 수십억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타 시·군 사례들을 설명했다.

박 담당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수요판단과 사후예측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합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경제 3국장 이봉열 국장

#### 정읍상공회의소

정읍상공회의소(회장 김인권)는 지난 30일자로 경제통상진흥 3국장에 이봉열(59) 국장을 임명했다.

3국장은 전북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정읍지역 본부의 사무국장으로 보임하게 되며, 앞으로 정읍지역 경제살리기 업무의 총책을 수행하게 된



다.

정읍시 태인면 출신인 이 국장은 원광대 행정대학원(경찰학 석사)을 졸업했으며 정읍경찰서 정보계장, 철보·북면 파출소장, 전북 지방경찰학교 내부교수,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전북지부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군산 신흥동 영화 촬영지로 뜬다

### 일제 강점기 건축물·근현대 모습 살아있어

#### ‘전설의 주막’ ‘나의 파바로티’ 등 8월 제작

일제 강점기 근대건축물과 1970~1980년대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군산시 신흥동 달동네가 영화 촬영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설의 주막’(강우석 감독), ‘나의 파바로티’(윤종찬 감독) 등 다수의 영화들이 군산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선 강우석 감독의 신작 ‘전설의 주막’은 황정민·유준상·윤제문

주연으로 주인공의 유년시절을 신흥동 동산중학교 일원에서 촬영할 예정이다.

또한 윤종찬 감독, 한석규·이제훈 주연의 ‘나의 파바로티’가 신흥동 옛 군산여상 일원에서 8월 중에 촬영할 예정이며, 독립영화사 시네마 달은 미성동 아메리카 타운에서 한국전쟁 직후 기자촌 주변 여인들의 삶의 애환을 그린 ‘가미의 땅’이라는 작품을 촬영할 예정이다.

이처럼 군산지역이 영화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근대와 현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점이 색다른 매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화 외에도 장미동에 위치한 중국음식점 ‘빈헤원’은 최근 종영된 드라마 ‘빛과 그림자’에 나오며 유명세를 타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일제수탈의 아픈 역사로만 기억되던 신흥동, 장미동 일대의 근대문화유산이 복원되면 근대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 장소로 더욱 부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근석기자 nogusu@

## 단신

### 군산 시립도서관 청소년 위한 영화 상영

군산 시립도서관(관장 신재현)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과 군산 시민들을 위해 8월 한달간 세만금드림홀(지하1층)에서 영화 5편을 상영한다.

2일에는 해리포터 시리즈 마지막 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을, 9일에는 만화 ‘도라에몽-진

구의 공룡대탐험, 극장판’을 상영한다. 또 16일에는 애니메이션 ‘장화신은 고양이’를, 23일에는 애니메이션 ‘왕두이’를, 30일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별을 쫓는 아이-아가타리의 전설’을 상영한다. 문의(063-450-6575)

/전북취재본부=박근석기자 nogusu@

### 정읍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위생 교육

정읍 교육지원청(장택수교육장)은 최근 관내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위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개인위생관리, 식자재별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검수시 준수사

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장택수 교육장은 “최근 계속되는 고온현상으로 식중독 사고가 높아 식재료 납품업체들의 세심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북남원 IC 진입로 공사 10억 확보

남원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북남원 IC 진입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북남원 IC 진입로가 개설되면 사내권 진입 거리단축 및 물류비 절감이 기대된다. 시는 2013년도 상반기에 2차선을 개통해 남원을 찾는 내방객 교통편의 제공 및 지

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크게 기여 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부세는 이환주 시장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북남원 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해 전격 이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 고창군, 주택 풍수해보험 1100세대 가입

고창군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풍수해보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1100세대가 ‘단독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강풍으로 주택 지붕 일부가 파손된 대산면의 한 보험가입 능력는 자부담 2만원과

수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아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다. 또한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5명은 보험금을 수령해 빠른 복구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다.

문의(063-560-2664)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